

사회

■르포-저소득층 밀집지역 독거노인들의 겨울나기

얼음장 방구들 전기장판 의지 온기없는 방안 녹록한 이불만

“언제 보일러로 방을 데워봤는지 기억조차 없어.”

지난 16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 쪽방촌. 언덕길을 100여m가량 오르자 숨이 차올랐다. 성인 한 명이 겨우 통과할 만한 골목길 양옆으로 유리창이 깨진 채 방치된 폐가들이 울썸스런 분위기를 자아냈다. 정혜자(가명·80) 할머니의 집은 이 골목길 사이에 있다.

허리를 굽혀 정 할머니의 방에 들어서자 한기가 엄습했다. 겨우 비바람만 막아줄 뿐 바깥 기온과 별반 차이는 없었다. 정 할머니는 이곳 4평(13.2㎡) 남짓한 방에서 전기장판에 의지한 채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보일러를 틀지 못한 탓에 방은 한기와 습기가 가득했다. 이불도 녹록했다.

정 할머니는 이곳에서 13년을 살았다. 이마저도 2년 전 세상을 떠난 집주인 할머니 자녀가 정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듣고 배려해 준 덕분에 작업이 없는 아들(45)과 함께 지내고 있다.

정 할머니의 한 달 생활비는 매달 받는 기초노령연금 9만4000원이 전부다. 작은아들과 끼니를 해결하기도 힘들다. 때문에 보일러를 기름통 눈금이 바닥을 가리키고 있는 지 오래다. 이따금 큰 아들(55)이 들려서 주고 가는 용돈이 있지만 이마저도 매번 장담은 못한다. 정 할머니는 몇 해전 허리를 다친 뒤로는 24시간을 TV를 보면서 지내는 것이 일과인 전부다.

정 할머니는 “동네 노인들이 따



지난 16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에서 만난 김명심(가명·75) 할머니가 보일러를 가동하지 못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자신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달 지원금 고작 9만원

가족 끼니 해결도 어려워

빙판길 폐지 주우러 나가

뜻한 경로당으로 나오라고는 하지만 내가 사는 곳이 너무 부끄러워 집 밖을 못 나가겠다”며 “이렇게 누운 채로 조용히 눈을 감고 싶다”고 말끝을 흐렸다.

북구 우산동 언덕길 가장 가파른 곳에 살고 있는 김명심(가명·75) 할머니집 안팎은 폐지와 고물이 가득했다. 김 할머니는 연탄 보일러와 길에서 주워온 전기장판으로 몸을 녹이며 추운 겨울을 보낸

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받은 연탄 300장으로는 겨울을 보내기 빠듯해 밤에만 겨우 불을 지핀다.

아들들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해 매일 거리를 헤매면서 보름에 4000~5000원 어치의 폐지를 줍는다. 그래도 서운함보다는 자식을 걱정이 앞선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연탄가스 중독이 의심된다”며 정밀검사를 받자는 말에 손사래를 치고 뛰쳐나왔다.

김 할머니는 “이미 이따금 연금 9만원을 다 써버려서 폐지를 주워야 하는데 지난주에는 눈이 많이 내려 마을 앞 언덕길을 나서기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전남 선거일 강추위 예상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인 19일 광주·전남지역은 강추위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8일 광주·전남지역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특히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밤 한때 눈이 오거나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칠 것으로 예상돼 체감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대통령선거일인 19일에는 기온이 더욱 떨어지지만 바람은 약하게 불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는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 목포는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 여수는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 분포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0일 오전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상승하면서 평년기온을 회복하겠다고 예보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조선대 개방이사 선임 또 보류

조선대 개방이사 선임 문제가 이사회에서 다시 보류됐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1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개방이사 선임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사회는 이날 외부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개방이사 3명 선임과 연말 및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8명의 연임 여부를 협의했지만 내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사회는 한 관계자는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개방이사를 추천받지 못한 데다 기존 이사들의 연임 문제도

합의 못해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 선임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이사회는 오는 24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관련 문제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조선대 이사회 정원은 9명으로 1명이 지난 2월 사임해 현재 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 이사 8명 중 6명은 다음달 말로, 2명은 내년 3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데 2명 이상의 새로운 인물이 이사회에 들어가려면 기존 이사 중 사퇴자가 있어야 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겨울방학 불법 운전교육

경찰 내달까지 집중단속

경찰은 무등록 불법 운전교육 등 운전교육과 관련한 각종 탈법·불법 행위를 17일부터 새해 1월25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겨울방학인 이 기간에는 수능을 마친 고3 예비 졸업생 및 대학

생 상당수가 운전면허 취득에 나서면서 무자격자의 불법 교습행위가 매년 기승을 부린다.

무등록자들은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이나 보조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개인 차량으로 교습하기 때문에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고 교통사고 때 보험처리도 받지 못할 수 있어 운전면허 취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당부했다.

연행뉴스

오늘 날씨

낮에도 추워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종일 출겠다.

Table with 2 columns: Location and Temperature. Locations include 광주, 목포, 여수, 나주, 완도, 구례, 강진, 해남, 장흥, 순천, 영광, 진도, 군산, 남원, 흑산도. Temperatures range from -3/1C to 2/3C.

Table with 4 columns: (오전) 바다, (오전) 파고, (오전) 체감온도, (오전) 동파지수, (오전) 뇌졸중지수. Includes data for 서해 남부 앞바다, 남해 서부 앞바다, and (오후) 바다.

Table with 2 columns: Day and Weather. Days include 19(수), 20(목), 21(금), 22(토), 23(일), 24(월). Weather icons and temperatures are shown.

경찰, 가정폭력맨 안방까지 수색

가택 출입·확인 권한 확대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집안 내부도 수색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에 배포한 ‘위급상황 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에서 가정폭력범죄 신고 때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경찰이 집안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도 경찰이 집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현관이나 로비에서 집안 내부를 둘러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범죄의 흔적을 발견한 경우만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비해 가정폭력범죄신고를 받은 경우는 집에 진입한 경찰이 기본적으로 방문이나 화장실 문 등을 열어볼 수도 있게 했다. 또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이 필요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나 신고자를 찾아 대면·조사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Advertisement for Daewon Travel (대원여행사) featuring train travel packages to Taebaek Mountain (태백산 눈꽃) and Jeongdongjin (정동진 일출). Includes contact info: 062)526-7000.

Advertisement for Segistar (세기보청기) featuring a cityscape background and the slogan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Includes website: www.segistar.co.kr.

Advertisement for Segistar (세기보청기) featuring product certifications (FDA, CE, ISO) and contact information: 1588-8499/080-222-0100.